

대동강반에 솟아날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

얼마전에 착공한 평양종합병원건설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있다.

경에 하는 최고정도자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종합병원건설을 기념하여 몸소 참석하시어 감동깊은 연설을 하고 건설의 첫삽도 뜨셨다.

지금 강한 전과력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COVID-19》사태로 공포에 떨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겁잡을수 없이 확산되는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들이 취해지고 지역적, 국가적규모의 봉쇄와 격리조치들도 취해지고있다.

사람들의 해외여행과 입국에도 차단봉이 내려지고 세계경계가 휘저어지고있다. 세계의 눈과 귀는 지금 온통 《COVID-19》사태에 쏠려 있는것이다.

이런 때에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건설이 국가적인 중대사업으로 착공의 첫 발파를 올리였으니 사람들이 어찌 놀라지 않고 격정에 겨워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번져가는 《COVID-19》이지만 공화국에는 아직까지 악성비루스가 들어오지 못하였다. 지금 공화국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빈틈없는 초특급방역조치들이 취해지고있는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은 예전그대로 평온하고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서는 불안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다.

이것은 전염병이 발생한 초기부터 가장 선제적이고 봉쇄적인 국가비상방역조치를 취해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철저히 막은데 기인된다. 언제나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가장 중요한 국사로 여기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

사랑과 현명한 령도의 손길에 의해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의 안전, 인민의 안전은 굳건히 지켜지고있는것이다.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을 주고 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친어머님의 심정으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세계적적인 전염병의 대동강반에서도 고백없이 인민들의 더 큰 문명과 행복을 위한 창조적 거창한 작전을 또다시 펼치신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인민사랑의 열도가 이처럼 뜨겁지 않다면, 미래에 대한 신심과 략관이 이처럼 확고하지 않다면 지금의 시절에서 누구도 엄두조차 낼수 없는 일이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겹쳐지는 재난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리지만 조선에서는 자연의 재난, 인류의 대재앙도 길들이며 더 큰 행복을 세운으로 창조하고 미래를 웃으며 앞당겨온다. 이것이 회색의 위인을 모신 공화국의 특이한 모습이다.

이 조선을 이끄시는 경에하는 최고정도자검정은원수님의 정치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이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해 인민보건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셨다.

유류아동병원과 류정안과 종합병원, 류정치과병원을 비롯하여 나라의 도처에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병원을 세워주시었다. 인민들을 위한 훌륭한 치료기구와 시설들을 마련해주시려고 요향산의로기공장을 훌륭히 개건하는데만도 얼마나 많은 로고와 심혈을 바쳐 오셨는가. 인민들은 현대적인 병원에서 돈 한푼 안내고 마음껏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으며 기쁨에 웃고있는데 주시는 사랑도 모자라신듯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맛있는 종합병원건설을 구상하시고 착공을 세상에 선포하신것이다. 이것은 인민사랑의 대화원에서만 꽃필수 있는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이다.

평양종합병원건설은 조선로동당이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숙원해온 사업이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종합병원을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완공하여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시고나서 구상을 하고 지난 2개월 남짓한 기간 부지선정으로부터 설계와 건설계획편성, 자재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최단기간내에 완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타산하면서 준비사업을 각방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리고 평양종합병원을 멀리 앞을 내다보고 현대적으로 건설하도록 이미 각 부문 일꾼들이 세계적으로 제일 발전수준이 높다고 하는 병원들을 참관하도록 하고그에 기초하여 설계를 높은 수준에서 선행하도록 해주셨다.

인민들이 행복의 단잠을 잘 때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숭고한 사색과 령도를 순간도 멈추지 않으셨던것이다. 새로 건설할 평양종합병원의 터전을 평양중심부의 명당자리에 정하여주시분도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세상을 둘러보면 나라마다 수도의 제일 좋은 자리들에는 정부청사와 은행, 대기업의 본사들이 자리잡고있다. 그러나 인민을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수도의 한복판에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웠다. 그 창조물도 어디 한둘인가. 인민대학습당과 평양학생소년궁전, 인민문화궁전, 유류관과 청류관, 창광원과 류정원, 룡라인민유원지, 인민극장, 인민야외빙상장, 문수물놀이장...

이제 착공을 선포한 평양종합병원의 터전도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위치하고있는 명당자리이다. 그곳에서 서 대동강반을 바라보면 그 건너편에 민수대언덕이 마주 보인다. 하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안에서

도 명당자리인 이곳에 우리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이 크게 건설되는것을 아시면 아마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제일 기뻐하실것이고 우리 인민들도 남녀로소모두가 다 좋아할것이라고 하신것 아닌가.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받기하고 성대한 착공식도 펼쳐주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한 창조와 발파소리를 듣고싶으시어 몸소 착공식장에 나오시어 인민을 위한 사랑의 연설도 해주시고 뜻깊은 첫삽도 뜨셨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창조물이 일떠설 때마다 제일 기뻐하시며 한달음에 달려가보시어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리상과 포부는 이렇듯 높고 원대하다.

하기에 그이께서 하신 사랑의 연설에 접하여 인민들은 저저마다 이렇게 격정을 터치였다.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목이 짝 메어올라 나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연설내용을 구절 구절 몇번이고 다시 새겨보았다.》, 《허심탄화하게 나라

안락의 형편을 특 터놓으시며 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연설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가슴을 울렸다.》, 《인민을 위하여 떨고 험난한 길을 헤쳐오시며 눈부신 창조물들을 수없이 세워주시고도 그 모든것을 큰 산속의 모래알처럼 여기시며 더 높은 리상과 포부를 내세우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을 우리러니 온 세상이 부러움에 천년만년 복락할 이 나라의 후손만대가 눈앞에 환히 보인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김정은위원장님께서는 착공식 연설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수십차례나 언급하셨다.》, 《인민의 건강증진이 최우선 무라고 밝혔다.》, 《평양종합병원을 착공한 배경에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있다.》 등으로 보도하면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하신것은 인민사랑, 인민중시를 최고의 정책으로 내세우셨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평하였다.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 온 나라 인민이 안겨 살기에 존엄과 행복의 오늘도 좋지만 미래는 얼마나 더욱 밝고 창

창할것인가. 그이의 높은 리상이 실현되는 이 땅에서 인민의 웃음소리 날로 높아가고 행복의 별천지가 늘어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에서 평양종합병원이 일떠서면 우리는 우리 인민의 소중한 건강과 안녕을 보다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얻게 될것이며 이를 중심적인 기지로 하여 나라의 보건부분을 크게 비약시킬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수 있게 될것이라고 하신다.

인민을 위한 대건설의 발파소리는 울리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과 정에 감복한 건설자들의 양양된 열의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제 머지않아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선진적인 종합병원이 번듯하게 일떠서게 될것이며 세계는 또 한번 조선의 변모되는 모습을 깊은 감동속에 바라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매혹과 흠모

누구도 따를수 없는 높은 리상과 목표

얼마전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서는 장쾌한 발파의 폭음이 강산을 진동하며 울려 퍼졌다.

경에하는 최고정도자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을 기념하여 몸소 참석하시어 감동깊은 연설을 하고 건설의 첫삽을 뜨시고 직접 발파단추를 누르신것이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최상급의 종합병원건설을 직접 받기하고 수도의 중심부에 터전까지 잡아주시 경에하는 원수님.

그날에 하신 그이의 말씀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뚫고 울려주는것인가.

... 최근에 평양시안에 안과병원과 치과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들과 아동병원도 현대적으로 일떠세웠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으며 이같은 성과들은 우리 당의 높은 리상과 포부에 비해볼 때 큰 산속의 모래알에 불과합니다. ...

큰 산속의 모래알!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는 그이의 리상과 포부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슴울리는 말씀이다.

세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경에하는 원수님처럼 이렇듯 원대한 리상과 높은 목표를 지니신분은 없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인 주체101(2012)년 12월에 벌써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삼천리강토우에 온 세계가 우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고 선언하시었다.

지구상을 둘러보면 공화국만큼 힘겨운 속에서 창조와 건설을 해나가는 나라도 없다.

재벌세력들의 악랄하면서 도대적인 제재와 고립압살책동으로 공화국의 전진도상에는 애로와 난관이 그야말로 중중첩첩으로 가로놓여

있다. 그런 최악의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주저않는것이 아니라 비약하고 전진하여 강국의 미래를 앞당겨오도록 하시려는것이 경에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리상과 목표가 높으면 그만큼 걸음걸이도 빨라지고 바치는 정열과 노력도 배가되기마련이다.

지금 공화국의 전진속도를 보면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비약적이다.

도처에서 천지개벽의 놀라운 전변이 일어나고 세인이 경탄하는 황홀경이 현수 펼쳐지고있다.

지난해 일관문화도시의 표준으로 일떠세워진 삼천리강토우 대규모 중형남새온실생장과 농장마을,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별천지와와 같은 모습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리상과 목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하는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최근 수년간 공화국의 군력강화에서 일어난 사변적인 성과들도 경에하는 원수님의 높은 리상과 뛰어난 령도력을 잘 보여주는것이다.

얼마전 헌사에서 전술유도 무기 시험사격을 보아주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는 국가 최근에 개발한 신형무기체계를 과개발중이 있는 전술 및 전략무기체계를는 나라의 방위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우리 당의 전략적 지도체현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고 선언하시었다.

지구상을 둘러보면 공화국만큼 힘겨운 속에서 창조와 건설을 해나가는 나라도 없다.

재벌세력들의 악랄하면서 도대적인 제재와 고립압살책동으로 공화국의 전진도상에는 애로와 난관이 그야말로 중중첩첩으로 가로놓여

있는 전쟁역력이라고 말할수 있다. 어찌 이뿐이라.

경에하는 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져 온 나라에 체육의 대중화바람이 불고 국제체육무대에서도 랑홍색공화국이 련속 오르고있다.

이 모든것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리상과 목표가 어떻게 하나하나 빛나는 현실로 되고있는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화폭들이다.

그이의 리상과 목표는 언제나 과학적인 실현방도와 실천활동이 동반된 현실적인 것이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참다운것이다.

중요한것은 자력이다. 그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실현해나간다는것이다.

우리 민족의 장구한 반의세투쟁사의 갈래에는 지난세기 일제식민지배의 암담한 세월 자력독립의 가치를 들고 과감히 싸운 조선국민회의 공적이 뚜렷이 새겨져 있다.

20세기 10년대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국내외에 있던 반일운동단체들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조직으로 활동한 조선국민회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에 의하여 결성되었다.

김형직선생님은 지원의 큰 뜻을 품으시고 한생을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애국자이시었다.

일제가 총칼로 조선을 강점한 후 가슴아픈 체험과 진기한 탐구로 독립운동의 방향을 무르익히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시었다.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는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으며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간다는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간다는것이 그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자기 나라의 힘,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최대한으로 분출시켜 부강조국건설의 높은 리상과 목표를 실현해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가장 과학적이고 현명하다.

원대한 리상과 높은 목표를 지니신 결철한 령도자를 모시어 공화국은 강해지고 인민의 행복은 나날이 더욱 꽃피어나고있다.

오현주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데 있었다. 조선국민회내내 근근리념도 반제자주, 민족단결이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조선국민회는 노동자, 농민, 교원, 학생, 민중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혈불굴의 정신이 담겨져 있었다.

지원의 뜻을 지니시고 험난한 령도의 새벽길을 헤쳐나간 김형직선생님께서는는 민족을 단합된 하나의 애국력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1917년 3월 23일 평양학당골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었다.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전체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3월의 봄우뢰소리

김윤식

달리는, 다르게는 결코 터칠수 없는 크나큰 격정 화산처럼 터져왔어라 평양종합병원건설의 첫삽을 뜨시는 위대한 어머니를 우리러 천만의 심장을 목매어 꿰뚫어라

《아, 우리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낌없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새 병원건설을 세상에 선포하신 우리의 원수님

아직은 부족했던 한두가지 아니여라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 어이 없으랴 허나 인민의 건강 인민의 밝은 웃음을 위해 수도의 한복판 명당자리에 명사복무의 대건설전투를 펼치시였거니

친어머님의 자애로운 정을 담아 그이 착공식장에서 하신 연설의 구절구절 그것은 우리 원수님의 심장이 터친 불같은 진정

인간사랑의 위대한 선언! 인민만세의 우렁찬 메아리!

《번영》과 《복지》를 목재지게 광고하며 《제재》와 《봉쇄》에 대달리는 극악한 무리들 머지않아 보게 되리라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 솟아날 또 하나의 창조물앞에서 수처와 모멸에 몸부림치리라

오, 인민사랑의 최고화신 우리 원수님을 모신 이 땅에선 눈부신 사변들 끝없이 무수히 태어나려니 세인의 한없는 경탄과 부러움속에 행복을 노래하며 기쁨의 세월 겪으며 천년을 만년을 예서 살고싶은 우리의 이 마음

어머리로 따르고 하늘처럼 받들며 그이 온정 천만년 길이 전해갈 뜨거운 심장들이 목매어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는 내 조국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 퍼진 아, 3월의 봄우뢰소리여라!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데 있었다. 조선국민회내내 근근리념도 반제자주, 민족단결이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조선국민회는 노동자, 농민, 교원, 학생, 민중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혈불굴의 정신이 담겨져 있었다.

지원의 뜻을 지니시고 험난한 령도의 새벽길을 헤쳐나간 김형직선생님께서는는 민족을 단합된 하나의 애국력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1917년 3월 23일 평양학당골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었다.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전체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자 일제는 우리 민족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말살하기 위하여 탄압에 매달렸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17년 11월 일제에게 체포되어 옥중생활을 하게 되었고 출옥후 지원의 높은 뜻을 실현하는 투쟁에 한몸바치실

이렇듯 우리 민족이 자력독립의 기치 밑에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개척할수 있게 한 님이요 의지이며 원동력인 지원의 사상은 백두산절세위인들에 의하여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며 공화국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여왔다.

어느 해인가 위대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꾼들에게 혁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일찌기 김형직선생님께서 내놓으신 지원의 사상은 수령님의

대를 거쳐 자신의 대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야 한다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지원의 사상은 공화국의 전 력사를 관통해온 계속 혁명의 사상이고 오늘날 인민의 마음속에 억척같이 뿌리내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주는 귀중한 정신적력량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은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과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해도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백두산위인인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최후승리의 깃발을 향해 굴함없이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김현아

이렇듯 우리 민족이 자력독립의 기치 밑에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개척할수 있게 한 님이요 의지이며 원동력인 지원의 사상은 백두산절세위인들에 의하여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며 공화국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여왔다.

어느 해인가 위대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꾼들에게 혁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일찌기 김형직선생님께서 내놓으신 지원의 사상은 수령님의

대를 거쳐 자신의 대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야 한다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지원의 사상은 공화국의 전 력사를 관통해온 계속 혁명의 사상이고 오늘날 인민의 마음속에 억척같이 뿌리내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주는 귀중한 정신적력량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은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과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해도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백두산위인인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최후승리의 깃발을 향해 굴함없이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김현아